

# 新羅僧 慧超의 인도네시아 (Indonesia), 스리위자야(Sriwijaya) 王國 潛在 可能性에 對한 小考(Ⅱ)\*

- 一切經音義와 '스리위자야' 王國의 地政學的 位置를 中心으로 -

金 榮 秀\*\*

## 目 次

I. 들어가는말	3) 滅亡
II. 慧超의 旅程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潛在可能性
1) 동남아시아의 航路	1) <一切經音義> 語句, 語彙 分析
2) 旅程의 始作	2) 慧超의 豫想航路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3)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3) 裸形國의 位置
4)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4) '스리위자야' 王國의 佛教
III. '스리위자야' 王國	5) 慧超의 言語 判別力
1) 出現	V. 맺는 말
2) 發展 및 隆盛	參考文獻

## Ⅲ. '스리위자야' 왕국

### 1) 出現

그 起源을 밝힐 수 있는 客觀的인 歷史資料가 現在까지 發見되지 못해 '스리위자야' 王國이 언제 出現했는지에 대해 考察할 方法은 없다. 가브리엘 페란드 (Gabriel Ferrand)는 '爪哇'라는 名稱으로 中國史記에 記錄된 것을 '스리위자야'의 音譯된 名辭라는 主張 아래 '스리위자야'는 이미 392년에 存在

\* 본 論文의 전반부(I)는 한국동남아학회 論叢 제 2집에 실렸음. 학회에 본 論文의 전반부 합본 別쇄본이 비치되어 있음을 참고바람.

\*\* 韓國放送公社 國際放送局 인도네시아語放送 프로듀서

했다는 見解를 밝히면서 ‘爪哇’를 자야 (Jaya), 위자야 (Wijaya) 또는 스리위자야 (Sriwijaya)라고 意譯했는데 歷史學者인 무하마드 야민 (Muhammad Yamin)도 이 見解에 同調했다.<sup>1)</sup>

그러나 ‘체란드’의 見解는 飛躍된 主張으로 볼 수 있으며 그 理由로는 中國 史記에서 ‘스리위자야’를 ‘室利佛逝’ 또는 ‘尸利佛誓’로 주저없이 記錄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 記錄에 室利佛逝가 처음 登場하는 時期는 7世紀 中葉이며 ‘스리위자야’의 첫 朝貢使臣이 中國에 到着한 年代를 670년이라고 적고 있다.<sup>2)</sup>

또한 ‘스리위자야’ 이름을 記錄한 碑文中 가장 오래된 것은 682년에 세워진 꺼두칸 부킷 (Kedukan Bukit) 碑文<sup>3)</sup>이며 지금까지 發見된 ‘스리위자야’에 關聯된 碑文中 그 以上 年代의 것을 만날 수가 없다.<sup>4)</sup>

1718년 르노도 (E. Renaudot)는 851년 아랍의 여행가 술라이만 (Sulaiman)이 記錄한 『Akhbarús - Shin Wál - Hind』<sup>5)</sup>를 解釋하면서 ‘자와’섬에 巨大한 王國이 存在했음을 說明했다.<sup>6)</sup> 그러나 ‘술라이만’이 言及한 ‘자와’는 現在의 ‘자와’ 地域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도네시아 群島를 指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타니스라스 줄리앙 (Stanislas Jullien, 1799 - 1873)은 ‘室利佛逝’를 ‘Çri bhoja’라고 音譯했다.

1845년 레이노 (J. T. Reinaud) 地域에 샤르바자 (Syarbazah) 王國이 存在했다고 밝혔다. ‘레이노’는 ‘샤르바자’를 스리부자 (Sribuza)로 意譯, 表記했다.<sup>7)</sup> 그 後 샤무엘벌 (Samuel Beal)은 1886년 스리보자

1) Nia Kurnia Sholihat Irfan, *Kerajaan Sriwijaya* (Jakarta : Girimukti Pasaka, 1983), p.18.

2) Sagimun M.D., *Peninggalan sejarah tertua Kita* (Jakarta : CV Haji Masagung, 1987), p.83.

3) ‘팔렘방’ 근처 地域名稱. 碑文은 10行으로 되어 있으며 古代 印度 南部地域 文字인 팔라와 (Pallawa) 文字로 記錄됨. 內容은 ‘스리위자야’王 다편다 향 (Dapunta Hyang)이 軍隊를 動員하여 大長征을 한 記錄임. 자세한 內容은 金榮秀, *Sriwijaya 王國에 대하여*, 崔鳳浩 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1990), pp.214 - 220. 參照

4) Sagimun M.D., *op. cit.*, p.83.

5) أكبر الصين والهند

6) E. Renaudot, *Anciennes Relations des Indes de la Chine* (Paris : 1718)

7) Joseph Toussaint Reinaud, *Relations de voyages faits Par les Arabes et les persans dans L'Inde et la Chine, 2 vols* (Paris : 1845)

(Sribhoja)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에 位置했으며 아랍어 表記, 音譯으로는 샤르바자 (Syarbazah), 中國語 表記로는 室利佛逝 또는 三佛齊<sup>8)</sup>라고 불리웠다고 정의 내렸다.<sup>9)</sup> 2

1892년 '방까'섬 西部海岸에 位置하고 있는 꼬따 까푸르 (Kota Kapur) 地域에서 '스리위자야'의 名稱이 反復하여 言及되고 있는 碑文<sup>10)</sup>이 發見 됐다. 1913년 헨드릭 케른 (Hendrik Kern)에 의하여 '꼬따 까푸르' 碑文이 解讀되었고 '스리위자야'의 意味를 王의 이름으로 理解했다.<sup>11)</sup> 즉 위자야 (Wijaya) 王으로 解釋했고 그 근거로서 스리 (Sri)라는 意味는 일반적으로 王을 指稱하는 名詞라는 것을 들었다.

1918년 코에데스 (G. Coedes)는 그의 著書 『Le Royaume de Çrivijaya』에서 '케른'의 見解를 反駁했다. 그 反駁의 資料로써 다음과 같은 事項을 提示했다.<sup>12)</sup>

1. '꼬따 까푸르' 碑文中 제 2, 4, 10行에서 發見 되는 語彙 즉 까다뚜안 (Kadatuan), 스리비자야 (Çrivijaya), 다투 스리비자야 (Datu Çrivijaya), 왈라 스리비자야 (Wala Çrivijaya)는 각각 '스리위자야' 王國, '스리위자야' 王, 그리고 '스리위자야' 軍隊를 意味하고 있으며
2. 리고르 (Ligor) 碑文 (또는 비엥 사 (Vieng Sa) 碑文)에서 發見 되는 스리비자 엔드라자 (Çrivijayendraja)는 라자 스리위자야 (Raja Sriwijaya) 즉 '스리위자야' 王이라는 뜻
3. 印度 출라만달라 (Cholamandala) 王朝의 라자라자 (Rajaraja) I 世 王에 의해 1006년에 세워진 레이든 (Leiden) 碑文中<sup>13)</sup> 마하위자 야똥가와르만 (Mahawijaya-tunggawarman)과<sup>14)</sup> 추다마니와르만

8) 宋代에 들어와 中國史記는 '스리위자야'를 三佛齊로 表記, 元豐 (1078 - 1085)대에 三佛齊國으로 指稱. 趙汝浩, 諸蕃誌 參照

9) Samuel Beal, *Some Remarks Respecting a place called SHIH-LI-FO-SHIH* (Paris, Leiden : 1883 - 1886), pp.251 - 253.

10) 碑文 內容은 '다똥따 향'이 自國內 叛亂, 逆謀를 警戒하는 것임. 자세한 關聯 內容은 金榮秀, *op.cit.*, pp.223 - 224 參照

11) Hendrik Kern, *Inscriptie van Kota Kapur* (BKI : deel 67, 1913), pp.393 - 400.

12) George Coedes, *Le Royaume de Çrivijaya* (BEFEO, tome XVIII, 1918), pp.1 - 36.

13) 現在 和蘭 Leiden 大學校, 博物館에 保存

(Cudamaniwarman)<sup>15)</sup>은 '스리위자야' 및 '끄다' 地域의 王이라고 表記되어 있으며

4. 印度 南部 탄조르 (Tanjore) 地域에서 發見된 碑文에서 言及한거와 같 이 1025년 '출라만달라' 王國 라젠드라출라 (Rajendracola) I 世 王 에 의해 正服된 國家들중 스리비자야 (Çrivijayayam)이라는 王國의 이름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꼬에데스'의 勞力에 의하여 오랜 時間 동안 사람들의 記憶에서 사라진 '스리위자야'는 20 世紀 初葉에 들어오면서 歷史의 表面에 다시 登場하게 되었다. 1920년 '꺼두간 부깃'과 딸랑 투오 (Talang Tuwo) 地域에서 發見된 '스리위자야'와 關聯된 碑文<sup>16)</sup>으로 '스리위자야' 王國의 存在는 더욱 確實해졌고 두 碑文은 後에 필리푸스 사무엘 반 론켈 (Philippus Samuel van Ronkel)에 의하여 解釋 되었다.<sup>17)</sup>

'스리위자야'가 7 世紀頃 王國의 形態를 갖추기 前에 인도차이나半島, 지금의 베트남 호치민 (Ho Chi Minh, 舊 사이공) 市를 中心으로 푸난 (Funan, 扶南)이라 불리운 王國이 存在했다. '푸난'의 主所得源은 中國과 印度, 中近東 등을 잇는 航路에서 그들이 管掌하는 反對給付로 받는 船舶의 通行料, 關聯 關稅 그리고 船積된 物品에 대한 安全保障費 등이었다.<sup>18)</sup>

따라서 管轄地域의 安全 특히 海岸線과 航路를 維持, 保存하기 위해 強力한 軍事力 특히 海軍力이 必要했다. 5 世紀初 '푸난'은 強大한 海洋王國으로 登場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勢力에 對抗 可能性이 있는 周圍의 다른 海洋勢力 登場을 抑制하기 시작했다.<sup>19)</sup>

當時 인도네시아 地域內에 存在한 王國은 따루마느가라 (Tarumanegara)<sup>20)</sup>

14) 宋史에는 思離麻囉皮로 記錄

15) 宋史에는 思離味囉無尼佛麻調華로 記錄

16) '팔렘방' 近處地名. 本稿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滯在 可能性 4) '스리위자야' 王國의 佛敎와 金榮秀, *op.cit.*, pp.220 - 221 參照

17) Philippus Samuel van Ronkel, *A preliminary notice concerning two old Malay Inscriptions in Palembang* (Acta Orientalia II, 1924), pp.12 -21.

18) R.Moh.Ali, *op.cit.*, p.21.

19) *Ibid.*, p.22.

20) 西部 '자와' 地域에 位置

와 물라와르만 (Mulawarman)<sup>21)</sup> 정도였으며 이 두 王國은 그들 地域內 海城만 管掌하는 정도로 미미한 勢力이었다.

‘푸난’에 對抗하여 힘을 겨룰 수 있는 海洋王國은 存在하지 못했으며 단지 인도차이나 半島 內陸에 位置하고 있었던 農耕國家인 크메르 (Khmer) 王國<sup>22)</sup> 정도였다. ‘크메르’의 農業 中心 經濟構造는 水耕農作에 필요한 肥沃한 土地의 確保, 農地整理, 道路, 寺院, 宮城의 建設 등 國家 基盤施設 擴充과 維持를 위해 자연스럽게 陸軍을 中心으로한 軍事力이 發展하게 되었고 그 根幹은 農民이었다. 領土의 擴張 즉 農地의 確保를 위해 ‘크메르’는 武力으로 隣近地域을 侵攻하기 시작하여 6 世紀末에는 ‘푸난’ 地域을 그들의 勢力下에 두게 된다.

農耕 위주의 ‘크메르’의 出現은 交易을 위한 海上航路의 重要性을 자연스럽게 減少 시켰으며 그 轉換期的 狀況에서 7 世紀頃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南部地域에서 ‘스리위자야’가 出現하게 된다. 따라서 東南亞地域 海上路에 ‘푸난’이 차지하고 있었던 海上權에 대한 空白 (vacuum of power)을 ‘스리위자야’ 王國이 서서히 引受하게 된다.<sup>23)</sup>

初期 ‘스리위자야’ 王國을 海洋王國으로 區分할 수는 없다. 무시 (Musi) 江 어귀를 中心으로하는 王國이었으며 약 1 世紀에 걸쳐 農耕 中心의 經濟<sup>24)</sup>에서 領土擴張의 結果로 海上貿易 中心의 經濟로 轉換하게 된다.

王國의 기틀이 잡히면서 ‘스리위자야’의 中心勢力은 수마트라 東部海岸 全地域, 隣近島嶼, 순다 (Sunda) 海峽<sup>25)</sup> 그리고 ‘자와’섬 近處의 島嶼들을 勢力下에 두게 되며 7 世紀末에는 ‘크라’峽地까지 掌握하게 된다.<sup>26)</sup> 이것은 ‘스리위자야’가 當時 東南亞地域 交易航路의 中心部分을 차지한 것을 意味하며 強力한 海軍力을 바탕으로 하나의 巨大한 海洋王國 (Negara senusa)<sup>27)</sup>으로 登場했음을 意味한다.

21) 東部 깔리만탄 (Kalimantan) 地域에 位置

22) 王國의 中心을 Vyadhapura (現 : 프놈펜) 두고 3 世紀初 Fanshikman 王 때 全盛期 맞음

23) R.Moh.Ali, *op. cit.*, p.23.

24) ‘스리위자야’ 王國 經濟構造의 根幹이 肥沃한 土地를 背景으로한 農業과 海上交易 經濟가 混合된 構造였다는 R.Moh.Ali의 見해도 있음

25)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와’를 가르는 海峽

26) R.Moh.Ali, *op. cit.*, pp.25 - 26.

27) 인도네시아 Moh.Yamin 教授가 처음 言及. 인도네시아共和國 憲法 제 540 장에 語彙 收錄

## 2) 發展 및 隆盛

初期 '스리위자야' 王國의 領土는 南部 수마트라 '무시' 江 어귀인 '팔렘방' 과 그 隣近地域이었으며 7 世紀 初葉까지는 海上交通의 要衝地로서 地理的 特性을 지니지 못했다. 반면 '잠비'에 그 中心을 두고 있었던 멀라유 (Melayu)<sup>28)</sup>는 東南亞航路 특히 '말라카' 海峽에 면한 戰略的인 良質의 港口를 갖고 있었다.

當時 中國 廣州로 向하는 船舶들은 대부분 말레이半島 東쪽에 있었던 '끄다' 와 '잠비'에서 寄港 後 出港했고 '스리위자야'의 '팔렘방'을 거치지 않았다. 그 理由는 '팔렘방'을 經由할 경우 航路가 迂迴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東進하여 '말라카' 海峽을 벗어난 船舶들은 '빈판'과 '링가'섬을 左舷으로하고 北쪽으로 航路를 잡았다. 다만 '팔렘방'港에 寄港하는 船舶에는 梵語와 佛經翻譯을 위해 또는 入竺의 前 段階로 訪問하는 外國僧侶들이 乘船했을 뿐이었다.<sup>29)</sup>

宗教的인 側面에서는 '스리위자야'가 優越했는지는 모르나 經濟, 交易面에서는 隣近國인 '멀라유'와 '끄다' 보다는 落後했으며 이 점이 '스리위자야'가 그들의 領域을 擴張하는 原動力으로 作用했다. 올리버 워터스 (Oliver W. Wolters)는 '스리위자야' 武力 領土擴張의 첫 犧牲國이 '멀라유'라는 見解를 發表했으며 이는 '멀라유'의 地理的 位置가 '스리위자야'와 隣接해 있었다는 事實에 根據를 두고 있다.<sup>30)</sup>

'스리위자야'는 '멀라유'의 領土인 '방까'섬 (686년에 隸屬 시킴), 람퐁 (Lampung) 地域<sup>31)</sup>을 併합한 後 北西쪽으로 勢力을 擴張하여 暹羅 湄江

28) 中國史記를 보면 '멀라유'는 644, 645년에 朝貢使臣을 中國에 보내고 있으며 '스리위자야'의 첫 朝貢使臣은 670년에 中國에 到着했음을 記錄하고 있다. 이는 '멀라유'가 '스리위자야'보다 그 建國이 더 오래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워터스'의 見解로는 初期에는 '스리위자야'가 '멀라유'의 屬國이었으나 後에 獨立하여 수마트라 地域의 새로운 强者로 登場, '멀라유'를 屬國化했다는 見解를 밝히고 있다.

29) 崔鳳浩, 동남아 事情 (增補版) (서울: 學文社, 1990), p.36.

30) O.W. Wolters, *Early Indonesian commerc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67), p.241.

31) 수마트라의 南部地域

(To-lang po-hang, Tulang Bawang)國을 屈服시키고 '말라카'海峽에 面한 戰略的 港口를 갖게 된다. '멀라유'가 '스리위자야'에 의해 併合된 事實은 까랑 버라히 (Karang Berahi) 警約碑<sup>32)</sup> 內容과 義淨이 밝힌 內容 즉 685 年 印度에서 歸國時 '멀라유'가 이미 '스리위자야'의 屬領이 되었다는 事實 言及으로 알 수 있다.<sup>33)</sup> '멀라유'에 대한 '스리위자야'의 侵攻은 682年 以前에 行해진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證據로 '꺼뚜한 붓깃' 碑文의 內容을 들 수가 있다.<sup>34)</sup>

계속 '스리위자야' 軍隊는 '말라카'海峽을 건너 말레이半島의 '끄다' 地域에 대한 併合과 '크라'峽地의 掌握을 目的으로 그 勢力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 背景으로는 印度洋에서 '말라카'海峽으로 船舶이 進入했을 때 처음으로 寄港할 수 있는 港口를 갖고 있었으며 '크라'峽地를 통한 東·西 東南亞航路의 交易를 統制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스리위자야'의 領土擴張은<sup>35)</sup> 지금의 泰國 南部까지 擴大 되었다. 그 證據로 775年 4월 15일 (11 와이사카 (Waisaka)<sup>36)</sup> 697 사카 (Saka)<sup>37)</sup>에 '스리위자야' 王命에 의해 차잇야 (Caitya)<sup>38)</sup>가 세워졌다는 '리고르' 碑文의 內容과 지금까지도 말레이시아와 泰國 南部地域에서 '스리위자야'의 遺物로 보이는 出土品の 發見을 들 수가 있다. 특히 泰國의 수랏 타니 (Surat Thani)州 차이야 (Chaiya) 地域은 '스리위자야' 時期부터 東·西 交易 要衝地의 하나였으며 아직도 많은 '스리위자야'의 遺蹟과 東·西 交

32) 자세한 內容은 Sagimun M.D., *op. cit.*, p.88 參照

33) 金榮秀, *op. cit.*, p.20.

34) 本稿 註 94) 參照

35) '스리위자야'가 勢力擴張時 부기스 (Bugis)族을 7 世紀 以後부터 傭兵으로 雇傭했다는 見解가 있음. 즉 海洋種族인 '부기스'族을 利用. 그 根據로서 발라푸뜨라데와 (Balaputradewa)가 '자와' 사일렌드라 (Sailendra) 王國에서 追放될 때 '부기스'族은 그에게 忠誠을 맹세한 事實을 들 수 있음. 자세한 內容은 Satyawati Suleiman, *Penelitian sejarah dan sejarah kesenian Sriwijaya*, praseminar penelitian Sriwijaya (Jakarta : Pusat penelitian purbakala dan peninggalan nasional, 7 - 8 December 1978), pp.93 - 94 參照

36) '자와' 曆의 月 名稱

37) L.C.Damais 計算法 適用. Saka의 意味는 힌두교 月曆中 年을 뜻함. 紀元 後 78년이 基準年임.

38) 宗教儀式을 行하는 建築物

易의 痕迹으로서 當時 中東과 中國의 磁器類 破片들이 海岸가에서 發見되고 있으며 그 중 품리앙 (Phumriang) 地域은 '스리위자야' 時期에 中心地로 볼 수가 있다.<sup>39)</sup>

한편 686년 2월 28일 '스리위자야' 軍隊는 '자와'를 향해 出發, '따루마느가라' 王國 功略에 나선다. 이는 '말라카' 海峽을 손에 넣은 '스리위자야'가 수마트라섬과 '자와'섬을 가르고 있는 '순다' 海峽의 掌握이 切實했기 때문이다.<sup>40)</sup> 勢力擴張의 結果로서 8 世紀頃에는 '스리위자야' 王國은 東南亞地域의 強大國으로 浮上하게 되며<sup>41)</sup> 東南亞航路를 지나가는 船舶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리위자야'의 領海를 지나가게 된다. 海上交易權을 掌握한 '스리위자야'의 國力은 商業去來의 利潤, 交易品의 關稅徵收, 安全航海保障이라는 名目下에 받아 들이는 各種의 稅金 등을 밑바탕으로 急速히 膨脹하기 시작했다.

東南亞地域에서 하나의 強力한 勢力으로 浮上한 '스리위자야'에 대하여 中國의 記錄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즉 『新唐書』<sup>42)</sup>를 보면 “ '스리위자야'를 '室利佛逝' 또는 '尸利佛' 라고 부르며 軍突弄山을 넘어 2 天里 가면 있는데 땅의 東·西가 千里이며 南·北이 四千里이다. 城이 14개 있고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西쪽은 浪婆露師라 부르며 男子가 많은 나라이다”라고 言及하고 있다. 이 事實을 근거로 하여 '스리위자야'의 領土擴張이 南에서 北쪽으로 向해 進行 되었음을 間接的으로 把握할 수가 있다.

『宋史』<sup>43)</sup>에 收錄된 『三佛齊』을 보면 “三佛齊國은 南蠻으로 15개 州를 轄하고 있으며 所有物로는 紅臙, 紫檀 등이 있다. 貨幣가 없고 金, 銀으로 物件

39) 李乘元, 海上 실크로드 大探查, 유네스코主管 '印度 - 태국 루트를 가다' (7) (서울 : 東亞日報, 1991. 3. 11), 또는 Oliver W. Wolters, *op.cit.*, p.64 參照

40) Slametmulyana, *Srivijaya's Territorial Expansion in 7th and 8th centuries* (Jakarta : Majalah Arkeologi II (3), 1979), pp.62 - 65. 參照

41) 지금의 베트남 하노이 近處까지 功略한 事實이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劉仁善, *op.cit.*, p.71 參照. 단 여기서의 崑崙閩婆는 '사이렌드라'를 指稱함

42) 新唐書 卷 二白二十二 室利佛逝傳

43) 宋史 四八九 三佛齊傳



을 사고 팔며 四季節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香氣나 는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산다. 이 나라에서는 보리가 나지 않고 쌀과 콩이 生産된다. 닭, 오리, 생선 등은 中國과 비슷하고 花酒, 椰子酒, 蜜酒등을 만들어 마시며 樂器로는 북, 琴이 있다. 王은 도장 대신 반지를 사용하며 기와로 數十里 城을 쌓고 산다. 住民들은 椰子 나무 앞으로 住宅 지붕을 하고 城外廓에 흩어져 산다. 밭 貨貨나 税金 徵收制度를 세우지 않고 征伐이 있을 때 酋長을 세워 住民을 動員하여 引率하게 했으며 兵器나 糧食은 自體的으로 準備하게 했다” 이 記錄으로 보아 ‘스리위자야’인들의 豐足한 經濟生活의 한 斷面을 볼 수가 있으며 體系의인 王權統治가 行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諸蕃誌』44)의 『三佛齊國』에는 “國王이 行次할 때면 배를 利用했고 紉緞雨傘을 쓰며 護衛兵을 거느렸다. 國民은 城外廓에 흩어져 살았다. 일부 百姓들은 水上家屋45)을 지어 살며 水陸戰에 能했고 征伐 때 수시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戰爭이 일어나면 酋長을 세워 引率하게 하고 각자의 武器와 糧食을 準備하게 했다. 敵과 마주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國法이 매우 嚴格하여 姦通罪를 범한 者는 極刑에 처했으며 國王이 逝去하면 百姓 모두 削髮하고 喪服을 입었으며 시종들은 따라 죽기를 원했다. 百姓이 傳染病에 시달리면 銀을 窮乏한 者에게 下賜했다. 수 많은 寶石으로 粧飾한 金冠은 매우 무거우며 朝廷에 모임이 있을 때 王이 썼다. 이 나라는 바다 위에 位置해 있어 모든 船舶往來에 있어 要衝地이다. 예전에는 鐵柵으로 限界를 만들어 盜賊 侵入을 防止했다. 그러나 商船이 들어오면 許可했다”

『嶺外代答』46)의 『三佛齊傳』을 보면 “三佛齊國은 南海에 位置하고 水路의 要衝이다. 이곳을 經由하지 않고 中國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이 나라에는 所有物이 없고 戰鬥에 能하다. 이웃 나라의 船舶이 지날 때 入國하지 않으면 戰士를 보내 全滅 시켰다” 이 記錄으로 보아 ‘스리위자야’ 王國은 그들의 領海內의 安全을 위해 또한 外國船舶들의 強制寄港을 誘導하기 위하여 武力(海軍力)도 서슴치 않고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島夷志略』47)을 보며는 “自龍牙(Lingga 섬)로 부터 5일 밤낮으로 가면

44) 諸蕃志, 卷上 三佛齊條

45) 高床式 家屋

46) 嶺外對答, 卷 二三 三佛諸條

이 나라에 到着한다. 水陸戰에 강했으며 兵士들은 藥을 服用하면 칼에 찔려도 傷處가 나지 않아 周圍國家들을 制壓했다. 風習은 淳朴하고 男女 모두 머리를 틀어 올리며 靑色 천으로 된 짧은 옷을 입는다. 生活이 清潔하며 물 위에 집을 지어 살기도 한다. 조개를 貯藏하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며 술을 담궈 먹는다” 위 記錄中 “男女 모두 머리를 올린다”라는 ‘스리위자야’인들의 風習과 慧琳의 『一切音經義』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 되어 있는 ‘鬘鬚’와의 關係는 매우 密接한 것으로 推定이 된다.<sup>48)</sup>

‘스리위자야’는 中近東地域으로 象牙, 紫檀, 朱錫, 香料 등을 輸出했고 中國地域으로는 象牙, 香水, 과일, 설탕, 珊瑚, 목면, 藥材 등을 輸出했다.<sup>49)</sup> 그러나 이 交易物品 ‘스리위자야’내에서 生産 되지 않는 物品이 發見 되는 것은 제 3國의 生産品을 迂廻輸出까지 담당했다는 證據로 볼 수가 없다.

‘말라카’海峽과 ‘순다’海峽을 掌握한 ‘스리위자야’는 造船, 航海技術 發展에 더욱 힘을 쏟게 되며 그 結果로 더 먼 바다를 航海하기 위한 大型船舶을 만들게 된다. 中國 記錄에는 이 船舶을 ‘崑崙船’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47) 島夷志略, 三佛齊條

48) 本稿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 可能性 1) 『一切音經義』의 語句, 語彙 分析 參照

49) Jacob Cornelis van Leur, *Indonesian trade and society* (Hague : Vann Hoeve, 1995), pp.342 - 343.

그림 (2 - 1) 보로부드르 寺院 벽면에 浮彫된 船舶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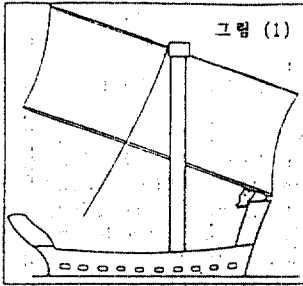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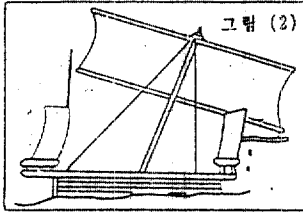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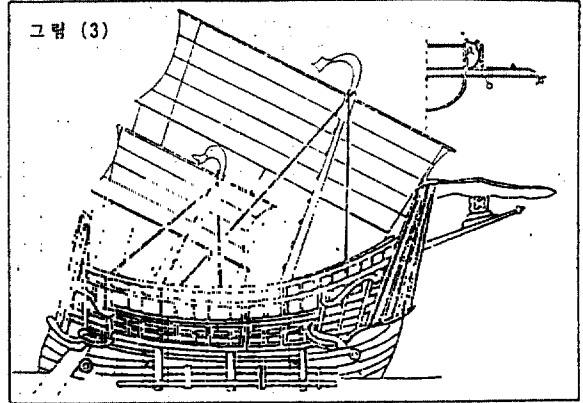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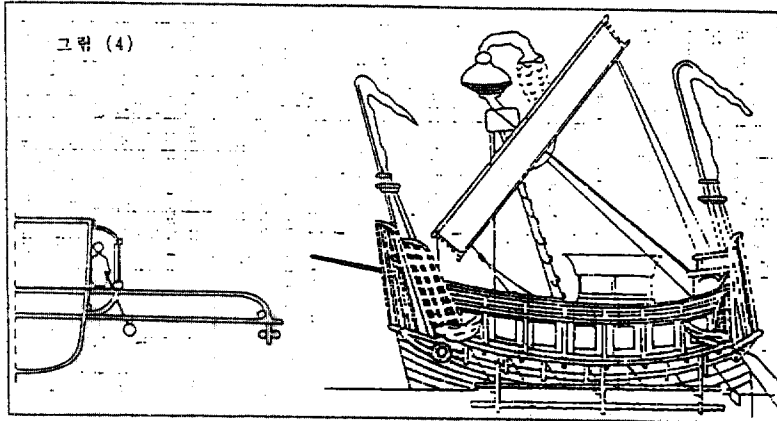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1) 直角으로 선 固定 돛대를 단 船舶

그림 (2) 斜角으로 선 固定 돛대를 단 船舶

그림 (3) 雙 均衡 버팀목을 裝着한 船舶

그림 (4) 의 均衡 버팀목을 裝着한 船舶

Van Erp, *Voorstellingen van vaartuigen op de reliefs van den Boroboedor* (Nederlandsch Indie & Nieuw, 1923 - 1924), pp.345 - 346에 收錄된 그림 引用

當時 '스리위자야'의造船技術의 한 一面을 '스리위자야'王國과 血族關係 50)를 맺고 있었던 '자와'地域에 있었던 '사이렌드라'王國이 830년에 建立한 中部 '자와'에 있는 브로부두로 (Brobudur) 寺院 벽면에 淨彫된 船舶의 形態<sup>51)</sup>로 짐작할 수가 있다.

한편 '스리위자야'王國과 中國과의 關係는 強力한 海軍力을 갖춘 '스리위자야'가 中國의 各 港口에 入, 出港하는 各種 船舶 특히 交易船에 대해 東南亞航路의 安全航海를 保障하는 役割을 擔當했기 때문에 兩國間의 友好善隣은 特異한 紛爭 없이 結束되고 朝貢의 關係로 維持되었다.

또한 傳統的인 內陸國家인 中國은 當時 '스리위자야'의 海軍力을 制壓할 수 있는 더 나아가 東南亞海域 특히 南支那海를 지나가는 航路의 安全航海保障을 위한 軍事力의 未洽으로 兩國間의 相互補完關係에 置重했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이는 兩國間 海上을 통한 直接接觸은 元朝 (1271 - 1368)에 들어와 서야 처음으로 試圖하여 失敗로 끝난 對 인도네시아 遠征<sup>53)</sup>과 明朝에 있었던 鄭和의 遠征<sup>54)</sup>事實로서 說明할 수가 있다.

### 3) 滅亡

수세기에 걸쳐 東南亞 海上權을 掌握하고 莫大한 富를 蓄積한 '스리위자

50) '스리위자야'와 '사이렌드라'王國의 血族關係는 8世紀 中葉 부터 시작됨. 이 可能性을 最初로 밝힌 學者는 Johan Philippus Vogel임. 그는 'De Sumatraansche periode des Javaansche Geschiedenis'라는 講演題目 (1919)에서 Bengal Pale 王朝의 Devapala왕의 銅版 (나란다 銅版)에 王의 治世期間인 1005년에 수와르나드비빠 (Suvarnadvipa, 수마트라 指稱)의 王 Maharaja Sri Balaputradewa가 네가 과탐 (Negapatam)에 建立한 寺院 (Cudamaivarmavihara)를 위해 다섯 村落을 봉헌했다는 記述과 그 後半部에 Sri Balaputradewa는 '사이렌드라'王國의 王子 사마라가위라 (Samaragavira)와 그의 妻 따라 (Tara) 사이에서 出生했다는 記述을 引用. Balaputradewa 以後 '스리위자야'王은 '사이렌드라'家의 血族을 잇게되며 'Sri Maharaja'라는 王의 稱號를 使用한 것으로 推定

51) <그림 2 - 1> 參照

52) 金榮秀, *op.cit.*, p.203.

53) R.Moh.Ali, *op.cit.*, pp.35 - 36.

54) 明代 1405 (永樂 3) - 1423 (永樂 21)까지 6차에 걸쳐 實施. 李龍範, *op.cit.*, pp.104 - 111.

야'도 內的, 外的인 諸要因으로 서서히 王朝의 滅亡으로 향하게 된다.

'스리위자야'가 넓은 領土와 領海를 手中에 넣고 巨大한 海洋王國을 建設할 수 있었던 主要 原因은 東南亞航路에 面한 良質의 港口를 그들의 勢力下에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央執權의인 王權은 經濟의 富가 可視의으로 產出 되고 있는 港口와 그 隣近地域에 集中되었고 그곳의 經濟活動 특히 交易에 그 優先을 두었다. 이는 '스리위자야'가 전체 領土에 대해 王權과 支配階級 勢力이 均等하게 波及 되지 못했음을 意味한다.

王權을 뒷받침하는 海軍力 역시 海岸線에 面한 港口와 그 隣近海域에 重點的으로 配置되었고 農耕地 中心인 內陸地方은 權力의 空白狀態化가 되었다. 自然히 港口 中心으로 獲得된 富의 蓄積이 그들 領土內 內陸 까지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고 海岸地帶 港口地域과 內陸地域간의 富의 再分配 不均衡에 따라 심한 經濟力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sup>55)</sup>

950년경 西部 '자와'에 떠구 아난따위끄라마 다르마왕사 (Teguh Anantawikrama Dhamawangsa) 王國이 出現하게 되며 初期에는 農耕國家에서 점차 隣近海域을 重視하는 海洋勢力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990년 '다르마왕사'는 東南亞航路의 掌握을 위해 '스리위자야'를 攻擊하게 된다. 이 싸움은 1007년 '스리위자야'가 '다르마왕사'를 陷落 시킴으로써 끝이 나지만 이는 '스리위자야' 國力 衰退의 契機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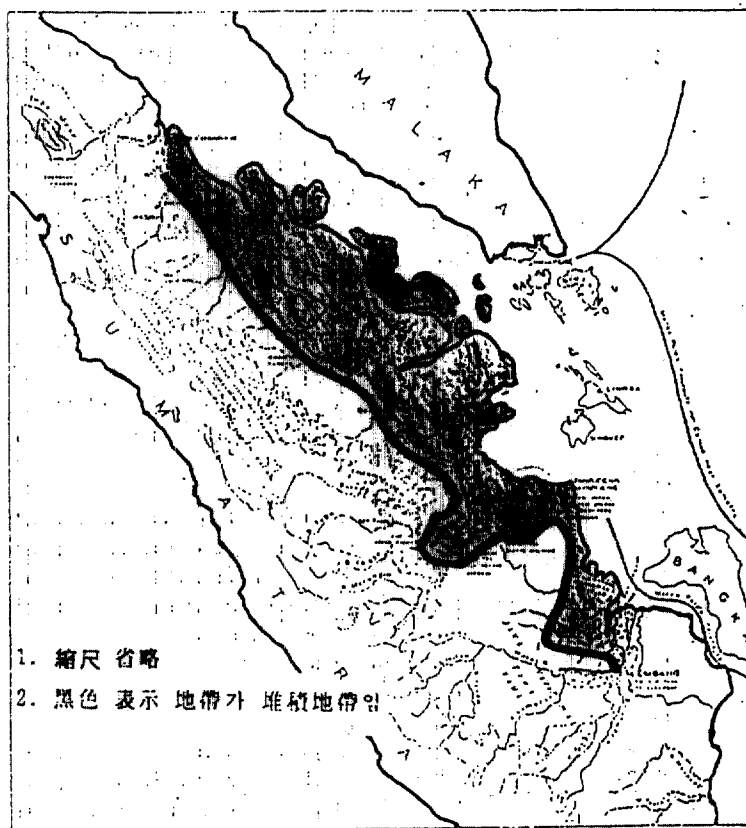
또한 1271년에 登場한 元은 그들의 勢力을 유라시아 地域까지 넓히는 巨大王國 (Pax Monggolica)으로 登場하게 된다. 그 勢力이 南部 아시아 地域으로 擴張되면서 自然히 東南亞地域의 勢力均衡도 깨지게 된다. 즉 시암 (Siam) 勢力이 강대해지면서 인도차이나半島에 存在했던 '스리위자야'의 屬領들은 強占, 그 지역的 強大國으로 等張하게 된다. '시암'에 對抗하여 맞설 수 없는 無氣力한 '스리위자야' 王權에 대한 反撥로 地域內 屬領들의 離脫은 急速히 擴大되기 시작한다.<sup>56)</sup>

55) 金榮秀, *op.cit.*, p.205.

56) R.Moh.Ali, *op.cit.*, p.35.

地圖(1 - 8)

수마트라 東部 海岸 堆積地帶



Obdeyn, V., *De oude zeehandelsweg door de straat van Malaka in verband met de geomorfologie der Selat-eilanden*(Tijdschr.Nederl.Aardr.Gen., 1942) pp.742 - 770에 收錄된 地圖 引用

반면에 元의 強大한 勢力 影響으로 ‘陸上 비단길’의 安全이 保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元의 陸上 道路網 擴充과 원활한 通信體系를 위해 세운 ‘驛’ 制度는 많은 隙商들이 그 길을 택해 交易을 하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 즉 東南亞地域의 勢力不均衡으로 그 地域에 많은 難民을 發生시켰으며 이들중 多數는 國籍不明의 海賊이 되어 東南亞航路를 지나가는 交易船을 威脅하게 되며 그 餘波로 自然히 船舶들의 東南亞航路 通過 頻度數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금 까지 強制寄港을 誘導했던 海運力의 強化로 ‘스리위자야’의 領海內를 通過하는 船舶 특히 交易船들은 더 이상 ‘방까’ 海峽을 經由하지 않고 짧은 航路를 택하게 된다. 이는 ‘스리위자야’의 急激한 經濟的 富의 減少를 招來했고 王權의 기틀마저 흔들리게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sup>57)</sup>

한편 ‘무시’, ‘바땅하리’ 江 등 ‘스리위자야’의 主要한 江 어귀가 점차 江上流로 부터 흘러 내려온 堆積物의 堆積<sup>58)</sup>으로 인해 강폭이 좁아지고 水深이 얕아지는 結果를 낳게 되며 결국 배의 出港, 寄港에 甚大한 障礙를 주게 된다. 즉 當時 바다에 面해 있던 ‘팔렘방’, ‘잠비’ 地域은 부깃바리산 (Bukit Barisan)<sup>59)</sup>으로 부터 發源하는 江의 흐름과 함께하는 堆積物의 堆積作用 (fluviatile sedimentation) 특히 雨期時<sup>60)</sup>에 活潑한 活動으로 늪 地帶化, 內陸化<sup>61)</sup>가 되기 시작했다.

또한 海岸線의 潮力에 의해 그 堆積物은 더 넓은 地域으로 擴散, 固定 地層化 되었으며 (marine sedimentation) 그 堆積物의 擴大에 當時 海岸가에 居住하고 있던 ‘스리위자야’ 人들이 버린 쓰레기 (조개껍질 등) (kjökkenmödding)와 망그로브 (mangrove)<sup>62)</sup>의 活潑한 繁殖은 그 一翼을 擔當하게 된다.

한편 ‘부깃 바리산’ 地域의 火山活動으로 인한 海岸地帶에 熔岩 堆積地帶

57) *Ibid.*,

58) 〈地圖 1 - 8〉 參照

59) 수마트라를 兩分하면서 北西에서 東南向으로 발달한 山脈

60) 인도네시아 氣候는 地域間 差異는 있지만 大別하여 乾期와 雨期로 區分할 수 있다. 雨期는 10월말 부터 3월 까지로 보며 4월 부터 10월까지는 雨期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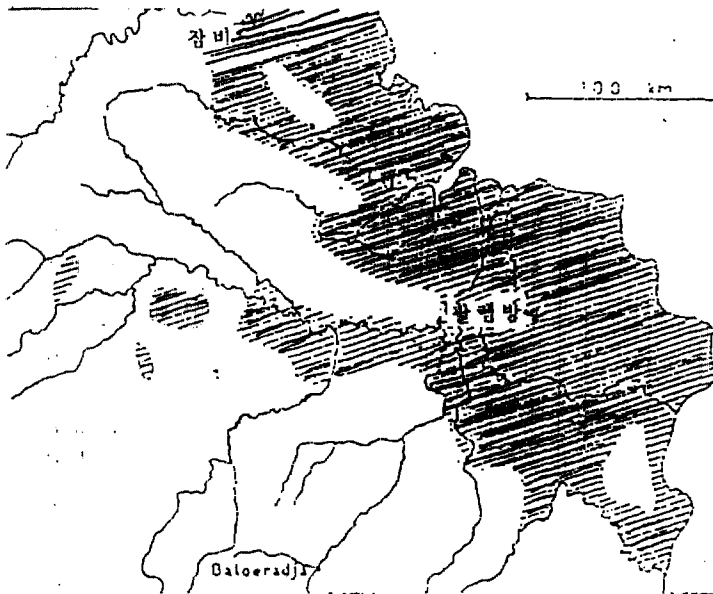
61) 〈地圖 1 - 9〉 參照

62) 熱帶 및 亞熱帶地方의 海岸, 河川에 分布되어 自生하는 木本性 植物

擴散으로 수마트라 東南海岸地帶가 그 面積을 '말라카' 海峽쪽으로 擴張되는 結果를 낳게 된다.

'사르또노' 教授는 이러한 自然的 또는 人爲的 現象으로 수마트라 東南海岸線地帶의 面積擴張을 堆積物의 堆積速度와 堆積物의 種類를 中心으로해서 다음과 같이 각 지역의 內陸化 速度를 算出했다.63)

地圖(1 - 9) 팔렘방, 잠비 隣近地域 堆積地帶



1. 斜線 表示 - 堆積地帶

Obdeyn, V., *De Oude zeehandelsweg door start van Malaka in verband met de geomorfologie der Selat-eilanden* (Tijdschr.Nederl.Aardr.Gen., 1942) pp.742에 收錄된 地圖 引用

63) S.Sartono, *op. cit.*, p.55.



『表 - 2』 수마트라 東南海岸 堆積으로 인한 內陸化

順序	地域名	堆積으로 인한 內陸化 速度	備 考
1	람뽕(Lampung)地域	15m/年, 先史時代부터 1932년까지 21Km	
2	팔렘방(Palembang)地域	125m/年	基準年度를 言及하지 않음
3	무아라 바땅 하리 (Muara Barang Hari) 地域(잠비 (Jambi) 地域에 位置	75 m/年	基準年度를 言及하지 않음
4	델리(Deli), 아사한 (Asahan) 地域	100 m/年, 1600년과 比較 하여 1899년에는 두 地域 이 15 - 30mile 정도 內陸化 進行	

이로써 '스리위자야'의 中心地였던 '팔렘방', '잠바' 地域은 海岸地帶에서 서서히 內陸地化 되었으며 이는 두 지역의 港口가 더 이상 그 技能을 發揮하지 못하게 됨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스리위자야'의 滅亡에 直接의인 影響을 준 것은 印度 '출라만달라' 王國의 3번에 걸친 侵攻에 對抗, 國力을 燒盡한 結果로 볼 수 있다. 初期에는 '스리위자야'와 '출라만달라'間的 關係는 매우 友好的이었으나 두 王國間的 關係가 不透明한 理由로 惡化 되기 시작, 1023년 '출라만달라'의 王 '라자라자' I世의 아들 라젠드라출라데와 (Rajendracoladewa)가 이끄는 軍隊가 까다람(Kadaram) 즉 '끄다' 地域을 主攻擊 對象으로 攻略하기 시작했다. 그 理由로 '말라카' 海峽에 面한 港口의 攻略으로 그들이 海上權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 싸움에서 '스리위자야'王<sup>64)</sup>은 生捕가 되며 다시 1030년 '라젠드라출라데

64) 當時 王의 이름은 상그라비자야똥와와르만 (sangramavijayattungavarman)임

와'는 '스리위자야'에 대한 제 2 차 攻擊을 敢行, 말레이半島에 있는 '스리위자야' 屬領을 攻擊한다. 그 後 '라젠드라출라데와'의 孫子인 와이라라자젠드라(Wairarajajendra)는 말레이半島를 向해 제 3 차 攻擊을 開始한다.<sup>65)</sup>

'출라만달라'의 세차례에 걸친 侵攻을 받은 '스리위자야'는 11世紀 中葉 부터 國力이 急激히 衰退하기 시작한다. 이 때를 '멀라유'는 그들의 獨立<sup>66)</sup>을 爭取할 수 있는 時期로 삼고 '스리위자야' 王國에 대하여 抗爭을 시작한다.<sup>67)</sup>

'멀라유'의 再登場은 '스리위자야'의 沒落을 加速化 시켰으며, '스리위자야'와 中國과의 關係도 멀어지기 시작, 결국 '스리위자야'는 中國에 마지막 朝貢使臣을 보낸 1178년 부터 『諸蕃志』의 1225년 記錄, 즉 '팔렘방'(Sriwijaya)은 '잠비'(Melayu)의 屬領이라는 記錄이 있기 까지 그 期間 동안에 '멀라유'<sup>68)</sup>의 屬國으로 轉落하고 만다.

따라서 7 世紀부터 13世紀 初葉 까지 약 600년간 東南亞의 海上盟主로 君臨했던 '스리위자야'는 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 可能性

『一切經音義』의 語句, 語彙 分析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收錄 되어 있는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中 39개의 語彙 가운데에서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 蓋然性を 나타내는 語句, 語彙는 발견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間接的으로 慧超의 旅程과 '스리위자야' 地域과의 聯關關係를 나타내는 語彙는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65) Y.Achadiati S., *sejarah peradaban manusia, zaman Sriwijaya* (Jakarta : gita Karya, 1983) pp. 27-28.

66) 宋史에 따르면 元豐 (1078 -1085) 年代 '잠비' 國이 朝貢해 왔다고 記錄

67) George Coedes, *Talanai* (JGIS, VIII, 1941), P.61.

68) '멀라유'는 다시 1275년 '자와'의 싱아사리 (Singasari) 王國의 꺼르따는 가라(Kerta Negara) 王의 侵攻을 받아 新'멀라유'가 되며 그 後 1377년 '자와'의 마자파히 (Majapahit) 王國의 侵攻으로 新'멀라유'는 滅亡하게 되며 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 地域은 中國海賊의 本據地로 轉落하면서 無政府狀態가 됨. 代表的인 海賊으로서 陳祖義와 梁道明을 들 수 있다. '스리위자야' 滅亡 以後는 Drs.R.Soekmono, *Pengantar sejarah kebudayaan Indonesia 2* (Yogyakarta : Penerbit Kanisius, 1988), pp.73 - 76 參照

첫째로, '鬘鬚'을 들 수가 있다. 그 뜻은 假髮과 수염을 意味하며 『一切經音義』 註釋에 따르면 南方 夷族의 粧飾風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假髮에 있어서는 지금도 수마트라地域을 包含하여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女性들이 그들의 傳統衣裳인 깐바야(kebaya)<sup>69)</sup>를 着用할 때 必需的으로 머리 뒷부분에 附着하는 假髮의 一種인 상굴(sanggul)<sup>70)</sup>과 깊은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島夷志略』에 言及되어 있는 “風習은 淳朴하고 男女 모두 머리를 틀어 올린다.”<sup>71)</sup>라는 內容과 '鬘鬚'와의 聯關關係는 密接한 것으로 보인다. 즉 假髮의 使用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낯설지 않은 오랜 歷史를 갖고 있으며 다른 東南亞地域과는 相異하게 하나의 風習으로 定着되어 있다.<sup>72)</sup> 또한 수염을 기르는 風習은 東南亞地域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男性들이 成人의 象徴으로 지금까지 그 傳統을 維持하는 것과 그 脈을 같이할 可能性이 提起될 수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語彙로서 '掛錫'을 指摘할 수 있다. “錫仗을 걸어 놓다”의 意味로서 본래의 뜻은 “僧侶가 僧堂에 들어가 安居할 때 그가 갖고 다니는 錫仗을 벽에 걸어 둔다”가 된다. •

즉 長短期 時間안에 僧侶가 寺刹에서 居住한다는 意味로 解釋할 수 있다. 따라서 慧超가 佛敎를 信奉하는 地域을 지나 갔거나 혹은 滯留했거나 아니면 그 地域에 대한 見聞을 들었을 可能性을 提示하는 語彙로 看做될 수 있다. 當時 降盛하게 佛敎가 퍼져 있었던 '스리위자야' 王國과 자연스럽게 聯關 시킬 수 있는 語彙로 보여진다. 물론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첫번째로 收錄된 '閻蔑'<sup>73)</sup>에 대한 註釋 部分 즉 “예전에는 林邑으로 불리웠

69) 옷옷을 意味하며 體型的 線이 그대로 나타나게 裁斷함

70) 모양은 圓形이며 材料는 사람의 毛髮이다. 지름은 약 20cm 정도가 되며 각종 裝飾으로 治粧한다.

71) “俗淳, 男女椎髻”, 島夷志略 三佛齊條 參照

72) 『島夷志略』에 收錄되어 있는 語彙, '椎髻'과 慧琳의 『一切經音義』,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나오는 '鬘鬚'에 대한 註釋 가운데 南蠻族의 風習을 說明하는 부분중 '椎髻'은 '머리를 틀어 올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意味로 각각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慧超의 旅程과 '椎髻風習'이 있는 地域과의 關係는 密接하다고 볼 수 있으며 東南亞地域 外國人의 視覺으로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 椎髻으로 보았을 可能性은 매우 크다. 따라서 東南亞에서 唯一하게 假髮의 一種인 '상굴'을 使用하는 인도네시아 地域과 慧超의 旅程과의 關係는 매우 깊은 것으로 推論할 수 있다.

다. 佛敎가 降盛하다”라는 內容과 “掛錫”과의 關係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의 語彙의 語句, 語彙의 收錄順序로 보아 ‘閻滅’과 ‘掛錫’의 時間的, 空間的, 地理的 거리 隔差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慧超의 旅程에 있어서 지금의 베트남 南部地域 보다는 ‘스리위자야’와 더 깊은 關係를 갖고 있는 語彙로 볼 수 있다.

세째로 ‘龜鼈’을 들 수 있다.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의 註釋에 따르면 “사람을 能히 해치는 파충류로서 4개의 발과 꼬리가 있으며 가죽은 두껍고 몸 길이가 5 또는 6尺 (약 1.5 - 1.8m) 정도에 등에 비늘이 있다”라고 했다. 이 ‘龜鼈’을 인도네시아 全域에 고루 分布되어 있는 악어와 비슷하게 생긴 肉食 파충류인 비아왁(biawak)<sup>74)</sup>과 恰似함을 들 수 있다.

‘스리위자야’ 地域과 直接的으로 關聯 可能性이 있는 위에 言及한 3개의 語彙 이외에도 『一切經音義』의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收錄된 39개의 語句, 語彙에 대한 註釋을 中心으로 慧超가 東南亞地域 특히 海路로 移動해간 事實을 直接的으로 證明할 수 있는 語句, 語彙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迸流 : 航海時 船舶이 不安全하게 波濤에 휩싸이는 現象

玳瑁 : 熱帶地方에 棲息하는 바다거북의 一種으로서 껍질을 黃金色이 나게 할 수 있음

龜鼈 : 거북과 자라를 뜻하며 자라의 배에는 甲子가 없다. 특히 東南亞地域에 大型이 있음

渤遼 : 波濤가 크게 몰아치는 現象

椰子漿 : 形態는 芭蕉를 닮았다. 껍질을 벗겨 造船하는 材料로 使用하여

73) 크메르 (Khmer)의 漢譯表記, 지금의 캄보디아를 의미하며 漢字에 있어 閻字와 閻字는 同一語로서 中國史記에 ‘크메르’를表記할 때 閻滅, 閻滅 또는 吉滅로함. 이 語彙를 통해 지금의 베트남 南部地域의 林邑(또는 Champa, 占城, 環王國)을 ‘크메르’가 6世紀末頃 公략한 事實을 알 수 있고 慧超의 旅程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本稿 IV 慧超의 ‘스리위자야’ 滯在 可能性 2) 慧超의 豫想航路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 까지) 參照

74) 種類로는 (1) varanus salvator (2) varanus dumerili (3) varanus rudicollis가 있음. 즉 인도네시아語로는 (1) 비아왁 비아사 (biawak biasa) (2) 비아왁 꾸당(biawak kudang) (3) 비아왁 서루나이 (biawak serunai) 임

蓋으로 利用할 수 있으며 그 맛은 南方地域의 과일중 제일 뛰어나다.

木 柵 : 南方의 蕃人들이 山에 居住할 때 居住地에 두른 나무 담장

壓 舶 :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

## 2) 慧超의 豫想航路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 까지)

慧超가 中國 廣州를 出發하여 '裸形國'까지 어떤 航路를 利用可能했는지는 本稿 II 1) 東南아시아의 航路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특히 慧超의 豫想航路를 推定하는데 있어 慧超의 『一切經音義』, 『慧超往五天竺國傳』에 나오는 39개 語句, 語彙中 注目 받을 수 있는 語彙로서 '閩蔑'과 '葛犍都'를 들 수 있다.

'閩蔑'은 中國語 發音으로 'keh-mie'이며 慧琳의 註釋에 따르면 "崑崙語로서 옛 이름을 林邑이며 崑崙國中 제일 크며 佛敎를 믿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林邑은 當時 '참파', '占城' 또는 '環王國'이며 지금의 베트남 南部地域을 指稱한다. 한 나라의 이름인 '閩蔑'에 대한 註釋은 慧超가 그 나라에 寄港, 滯留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見聞을 들었을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으며, 이로써 慧超의 旅程이 지금의 베트남, 東南部 海岸을 따라 進行 됐을 높은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 語彙로서 慧超가 中國 廣州를 出發, 裸形國 '까지 到着하는 길을 陸路로 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葛犍都'는 中國語 發音으로 'ke-lah-du'이며 慧超의 註釋에는 "崑崙語이다"라고 만 言及하고 있으며 詳細한 意味에 대해서는 說明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사항은 이 語彙가 어떤 地名을 나타내고 있을 可能性이다. 즉 말레이半島 南部地域의 끌란탄 (Kelantan)<sup>75)</sup> 地域과의 關聯關係이다. 中國史記에서는 '끌란탄' 地域을 吉蘭丹(中國語 發音 : Ji-lan-dan)이라고 表記하고 있으나 外國地名의 表記에 있어 一貫性 있게 表記하지 않는 中國史記의 傳統으로 모아 '葛犍都'는 '끌란탄' 地域과의 關係 可能性을 보여주는

75) 609년 中國史記에는 '끌란탄' 地域에 位置한 느그리 따나 메라 (Negeri Tanah Merah) 王國에 대해 言及하고 있다. 즉 中國使臣이 그 나라에 到着해 보니 사람들이 3개의 門을 통해 出入했고 王에 의해 統治되고 있었다. 佛敎가 陸盛하지만 힌두敎 寺院도 王宮에 자리 잡고 있었다. Mubin Sheppard, *Taman Indera* (Kuala Lumpur : Oxford Univ. Press, 1972), pp. 6-7.

語彙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慧超의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의 豫想航路<sup>76)</sup>로는 첫번째로 中國 廣州에서 乘船하여 珠江을 따라 내려 가다가 '마카오' 앞 바다에서 右側으로 方向을 잡고 海南島와 中國大陸 사이의 海路를 西進하여 베트남 北部地域에 到着, 그 後 베트남의 東, 南部海岸을 따라 내려 가다가 '콘손'섬에서 말레이半島를 右側으로 보면서 싱가포르海峽에 到着, 西進하여 '말라카' 海峽에 進入, 수마트라 東部, 北部(바루스) 海岸地帶 또는 '끄다'를 거쳐 '裸形國'에 到着했을 可能性과 두번째로 中國 廣州에서 乘船하여 말레이半島 近海까지는 첫번째 航路를 따라 南下하다가 '방까' 海峽을 통과 '스리위자야'의 中心인 '팔렘방'에 寄港, 그 後 '말라카' 海峽을 통과, 수마트라의 '바루스' 地域 또는 말레이半島 '끄다'를 經由, '裸形國'에 到着하는 航路를 택했을 可能性을 들 수 있다.

本稿에서는 두번째 可能性 즉 '방까' 海峽을 통과했을 航路를 選擇하고 싶다. 그 理由로는 船舶의 航路를 誘導하는 '스리위자야'의 海軍力과 '스리위자야'의 降盛한 佛敎와 外國僧들이 入竺하기 전 通過儀禮로 4 世紀 부터 '스리위자야'를 訪問했던 當時의 傾向을 들 수 있다.

### 3) 裸形國의 位置

本稿 II '慧超의 旅程 4)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에서 이미 言及했듯이 '裸形國'은 現在 印度領인 '니코바르' 群島이다. 그 位置는 印度 캘거타 (Calcutta) 東쪽, 약 1,700Km에 '벵갈'灣 東南亞, 안다만 (Andaman)海 南部에 있으며 北部에 '안다만' 諸島와 南北으로 이어져 있는 形態를 갖고 있다. 또한 '말라카' 海峽을 南西向으로 올라 가다가 큰 바다 (open sea)가 되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群島이다.

76) <地圖 1 - 10> 參照

地圖(1 - 10) 慧超의 豫想航路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1. 縮尺 省略

'끄다'에서 裸形國으로 또는 '끄다'에서 '바루스'를 거쳐 裸形國으로 향하는 航路를 향해했을 可能性이 높음

이러한 '裸形國'의 位置는 慧超가 말레이半島 北部에 位置하고 있는 '크라' 狹地를 通過해서 入竺했다면 그의 발길을 많이 遲滯했을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理由로서는 '크라' 狹地를 通過, '裸形國'까지의 旅程은 南西方

向으로 내려 왔다가 入竺을 위해 北西方向으로 다시 올라가야하는 길을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크라' 狹地를 東에서 西로 慧超가 통과했다면 入竺의 첫 발이 시작되는 갠지스江 어귀를 向해서는 北西方向으로 이어지는 航路를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義淨이 이미 밝혔듯이 '裸形國'은 當時 아직 未開한 狀態로 佛敎도 들어와 있지 않은 地域을 慧超가 그의 旅程을 늦춰가면서 迂廻하여 '裸形國'을 訪問, 滯留했을 蓋然性은 무척 稀薄하다.

따라서 慧超가 '裸形國'을 訪問한 것은 '말라카' 海峽을 통과, 印度로 航海함에 있어 어쩔수 없는 하나의 寄港地로서 그곳을 訪問했을 可能性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말라카' 海峽을 通過하여 수마트라 北部地域에 있는 '바루스' 또는 말레이半島 東部に 있는 '끄다' 地域에서 '裸形國'으로 이어지는 航路를 따라 갔을 可能性은 매우 크며 다시 '裸形國'을 出發, 그 北部에 있는 '안다만' 諸島를 거치면서 北上, 入竺하는 航路를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을 보아도 慧超의 '裸形國'에 대한 印象이 좋지 않게 言及<sup>77)</sup>된 것으로 보아 '裸形國'에 寄港은 피치 못할 旅程의 中間 寄港地였음을 間接적으로 알 수 있다.

#### 4) '스리위자야' 王國의 佛敎

인도네시아 地域에 佛敎가 傳來된 것은 2 世紀부터 6世紀에 걸친 時期였다. 이러한 佛敎의 傳播는 안드라 (Andhra) 帝國 商人들의 影響 때문이었다. 이 商人들을 버마(現 : 미얀마), 인도차이나, 中國과의 海上貿易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이들 나라들의 보다 高度로 發達한 社會構造, 政治體制, 文化 그리고 佛敎를 紹介했다.<sup>78)</sup>

한편 印度의 굽타(Gupta) 帝國과 같은 莫強한 王朝가 勃興하여 그 結果

77) (上缺) 寶赤足裸形外不着依 (下缺)... 亦不齊也地皆平(下缺). 慧超, 李錫浩譯, *op.cit.*, p.35.

78) Dietrich Seckel, 白承吉譯, 佛敎美術 (原名 : *The Art of Buddhism*) (서울 : 悅話堂, 1985), p.52.



로 인해 強制로 내 물린 印度의 여러 王朝들의 사람이 인도네시아로 流入도 인도네시아 地域에 佛敎가 傳播되는 한 요인으로 作用했다.

처음에 導入된 佛敎는 上座部佛敎이었으나 7 世紀初 부터는 大勝佛敎가 들어와 얼마 되지 않아 最高의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義淨은 '스리위자야' 地域 사람들이 信奉하는 佛敎中 金剛僧<sup>79)</sup>도 廣範圍하게 퍼져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80)</sup>

義淨의 『大唐西域求高僧傳』을 보며는 中國, 新羅 등에서 入竺하는 僧侶들은 예외 없이 '스리위자야'에 들러 거기에서 楚語<sup>81)</sup>와 佛經을 공부하고 더운 氣候와 飲食을 印度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익히기도 했다는 記錄이 나온다.<sup>82)</sup><sup>83)</sup> 이는 入竺僧들이 長期間 또는 短期間 '스리위자야' 地域에 滯留 했음을 意味하며 그 또 다른 證據로서 당시 '스리위자야'에는 大規模의 佛敎大學과 사크 아키르티(Sakyakirti)라는 高僧의 存在와 많은 僧侶들의 求法活動이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sup>84)</sup>

이러한 結果로 '스리위자야' 人들은 佛敎敎理中 菩提心 (bodhisattawa)에 心醉, 활달한 菩提心の 發露로서 動的인 文化, 諸價値觀을 形成, 發展 시켰으며 특히 그들의 經濟活動이 精神的 支柱로 삼게 되었다.<sup>85)</sup>

『諸蕃志校注』<sup>86)</sup>에 보면 "스리위자야에서는 金으로 佛像을 만들며 새로운 國王이 登極하며는 金佛像을 만들었다"라고 記錄하고 있다. 또한 『巖外代答』<sup>87)</sup>은 "三佛齊 王은 聖佛에 香을 피워 예를 올린다"라고 言及하고 있어 '스리위자야'의 佛敎는 王權의 庇護 아래 '스리위자야' 人들의 精神的인 重要한 尺

79) 大乘의 한 變形

80) Dietrich Seckel, 白承吉譯, *Ibid.*, p.52

81) 僧侶들간의 楚語는 common language로 사용 됐고 印度의 月明, 尺度가 사용됨. N.J.Ryan., *op., cit.*, pp. 9 - 10.

82) 義淨에 따르면 '팔람방'은 佛敎의 중심지이며 楚語로 佛敎의 가르침을 行했다고 함. Ismail Hamid, *Masyarakat dan Budaya Melayu*(Kuala Lumpur:Dewan Bahasa dan Pustaka,1991),p.50.

83) 中國人들은 '스리위자야' 語를 崑崙語라 稱했다. 즉 古 '멀라유' 語인 까위(Kawi) 語인

84) Drs.S.W.Siswoyo. *op., cit.*, pp.32 - 33.

85) R.Moh.ali, *op., cit.*, p.32.

86) 有佛名金銀山, 佛像以金鑄, 每國王位, 先鑄金形以代其軀. 馮承鈞, 諸蕃志校注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5年), 三佛齊國, p.13 參照

87) 有聖佛齊國王再歲一往燒香, 巖外代答, 卷 二三, 三佛齊條 參照

도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팔랑 뚜오’ 碑文을 보며는 ‘스리위자야’ 王國에서 大乘佛敎가 어떻게 신봉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sup>88)</sup> 즉

Swasti, Çri, Çakawarsatita 606 dim dwitiya Çuklapaksa wulan Çaitra sana takkalanya parlak Çriksetra ini niparwuat, parwan Dapunta Hyang Çri Jayanasa. Ini pranidhanan Dapunta Hyang.

解釋은

얼마나 기쁘고 성공적인가! 606 사카 (saka), 사이뜨라 (saitra), 2일 (684년 3월 23일) 스틱세뜨라 (Sriksetra) 庭園 工事を 始作했다.

이는 다뽀따 향 스리 자야나사 (Dapunta Hyang Sri Jayanasa) 王의 명령이다.

위에 言及한 ‘팔랑 뚜오’ 碑文 내용은 제 1行에서 2行까지이며 나머지 3行 부터 14行까지는 ‘스릭세뜨라’ 庭園에 심어질 花草의 이름과 이 庭園을 建設하는 目的, 즉 모든 사람들에게 生物의 繁昌함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傳播하겠다는 大乘佛敎의 敎理가 적혀 있다.

또한 降盛했던 ‘스리위자야’ 王國 佛敎의 한 一面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적으로서 가늠할 수가 있다. 즉 ‘보로부두르’ 寺院 보다 그 規模가 더 컸을 무아라 따꾸스 (Muara Takus) 寺院의 遺構와 200여개가 넘는 浮屠 群을 들 수가 있으며 赤色 벽돌로 쌓아 올린 圓形의 스투파 (stupa)를 꼽을 수가 있다.<sup>89)</sup>

한편 로로종그랑 (Lorojongrang), 빨라오산 (Plaosan), 비아로 바할 (Biaro Bahal) 寺院 등의 遺蹟을 통해, 1024년 음뿌 수르야 (Mpu Surya) 가 製作한 佛像의 아름다움을 통해 ‘스리위자야’ 佛敎의 降盛했음을 엿 볼 수가 있다.<sup>90)</sup> 그리고 ‘팔렘방’ 博物館에 거의 放置된 채 保管 되고 있는 7 - 9

88) Nia Kurnia Sholihat Irfan, *op.cit.*, pp.51 - 53.

89) Y. Achadiati, *op.cit.*, pp.24 - 25.

90) *Ibid.*, pp.26 - 27.

世紀頃に 만들어진 20여점의 간다라 (Gandhara) 式 石佛을 통해 ‘스리위자야’ 佛敎藝術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sup>91)</sup>

따라서 隆盛하게 佛敎가 發展하고 入竺僧에 대한 歡待가 있는 ‘스리위자야’ 地域을 慧超가 無心히 지나쳤을 可能性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그 期間이 얼마인지 把握할 수 없지만 一定期間 ‘스리위자야’에 滯留했을 蓋然性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觀點에서 慧超의 『一切經音義』 『慧超往五天竺國傳』 上卷에 手錄된 39개의 語句, 語彙에 대한 註釋中 11번째의 ‘掛錫’과 慧超의 ‘스리위자야’에 滯留와의 關聯 可能性을 推論할 수 있다.

### 5) 慧超의 言語 判別法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을 보면 ‘裸形國’에서 安西都護府까지 慧超는 32개 地域과 國을 지나면서 각 地域의 言語에 대한 比較, 分析을 한 內容이 21회 나온다. 이 중 吐火羅國에서 見聞으로 聽聞한 10개국의 言語에 대한 4회에 걸친 言及을 제외해도 慧超가 直接 듣고 比較, 分析한 각 地域의 地方語에 대한 言及은 17회가 된다.

그 중 예를 들면 “風俗은 中天竺國과 비슷하나 言語가 大勃律國과 비슷하다”<sup>92)</sup>, “風俗이 ‘간다라국’과 비슷하나 言語는 다르다.<sup>93)</sup>”, “言語와 衣服이 ‘우이아나국’과 비슷하다.<sup>94)</sup>” 衣服, 言語, 飲食이 ‘투카라국’과 大同小異하다. “그 나라의 言語는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sup>95)</sup>”, “그 나라의 言語는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sup>96)</sup>, “言語는 여러 나라와 다르나 ‘카피스국’과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다르다<sup>97)</sup>” 등으로 들 수가 있다.

이는 慧超가 當時 五天竺國 地域의 地方語<sup>98)</sup>(現地語) 驅使力이 상당한 水

91) 金鍾玉, *op. cit.*, p.17.

92) 人風與中天相似唯言音與大勃律相似

93) 衣簪飲食人風與健馱羅國相似言語不同

94) 衣簪言音與烏長國相似

95) 衣簪言音食飲與吐火羅國大同小異

96) 當土言音不同於天

97) 言音與諸國加共 諸國少有相似多分不同

98) 現在 印度에는 약 850여개의 地方語가 있으며 그 중 16개 地方語를 lingua franca로 使用함

準에 올라 있었음을 直接的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反面에 現地語에 대한 習得이 事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각기 다른 言語에 대한 比較 및 分析을 할 수 있는 判別力은 形成되지 못했을 것으로 推定된다.

즉 多様な 地方語로 構成되어 있는 印度의 言語體系에서 각 言語別 差異點과 nuances(nuance)까지 普及한 慧超의 言語判別力은 高度의 水準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 地域의 言語 習得과 判別力이 短期間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勘案한다면 五天竺國 地域을 中心으로 한 慧超의 현지어 사견 습득과정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入唐하기 前 新羅에서 慧超가 五天竺國의 言語를 접했을 可能性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理由로는 8世紀 初葉 體系의 五天竺國의 言語를 가르친 學校 形態의 教育機關이 新羅 안에 存在했었다는 事實이 發見되지 않고 있으며 入唐前 外國語習得이라는 한 課程을 準備하기에는 慧超의 年齡(99)이 낮았음을 들 수 있다.

慧超와 五天竺國 言語와의 만남은 그가 中國 廣州에서 스승인 金剛智와 不空三蔣을 만난 以後로 當時 南部 印度 出身인 두 스승과의 意思疏通은 漢文 使用을 한 통한 筆答으로 아니면 中國語로 이루어졌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그 理由로는 金剛智와 不空은 卓越하게 漢文에 能通해 있었음을 들 수가 있으며 이는 그들이 梵語로 되어 있는 佛經을 漢譯하는 作業을 進行했고 그 作業에 慧超가 參與한 事實로서 證明할 수 있다.

따라서 慧超의 體系의인 五天竺國을 中心으로한 言語學習은 다른 入竺僧의 예와 같이 廣範圍하게 梵語와 기타 關聯言語 教習이 佛教寺院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스리위자야' 地域에서 行해졌을 可能性은 매우 높다. 즉 佛教의 中心이며 入竺 巡禮의 主對象地인 五天竺國 言語에 대한 事前習得은 入竺僧들에 있어서 重要な 하나의 準備段階였으며 그 對象地域으로 '스리위자야'를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正確한 期間은 알 수 없지만 一定 期間 동안 慧超가 '스리위자야' 王國에 滯留했을 또 다른 可能性을 提示한다고 볼 수 있다.

99) 慧超의 年齡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음

## V. 맺는 말

1200년 前 목숨을 걸고 海路를 통해 入竺했다가 陸路를 利用, 그 出發點으로 돌아 온 新羅僧 慧超의 求道旅程을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잊혀졌던 人物, 新羅僧 慧超와 歷史의 裏面으로 사라졌던 王國 '스리위자야'에 대한 研究는 偶然의 一致 처럼 20 世紀 初盤에 들어와서 거의 같은 時期에 시작 되었고 그 主體는 아쉽게도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제 3국의 關聯 學者들의 손에 의해서 進行 되어 왔다.

그 結果로 慧超와 '스리위자야'에 대한 歷史的 事實이 客觀的인 論證資料를 根幹으로 하여 밝혀졌고 記憶 되는 人物, 存在했던 王國으로 認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部分과 接近해야 할 廣闊한 分野가 未開拓狀態로 남아 있고, 그 理由로 해서 慧超와 '스리위자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疑問符號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펠리오'의 말처럼 法顯<sup>100)</sup>의 『佛國記』처럼 文學的 價値도 없고 玄奘<sup>101)</sup>의 『大唐西域記』만큼 精密한 記述도 없지만은 慧超가 巡禮의 記錄으로 우리에게 남긴 『往五天竺國傳』이 갖는 意義는 그 무엇 보다도 韓人으로서 8 世紀 初葉 東南亞, 印度, 그 隣近地域을 지나면서 그의 足跡을 뚜렷이 남겨 놓았다는 事實과 그 事實을 통하여 當時 그 地域의 諸事情을 把握할 수 있을 을 들 수 있다.

특히 當時의 具體的인 地名과 寺院 이름 등이 記錄으로서의 價値를 지니고 있고 더욱 價値있는 것은 佛敎 外的인 記錄들이다. 그것들은 風習, 政治, 物産에 대한 記述인데 慧超 보다 1 世紀 앞선 玄奘의 記錄에는 없는 것들이다.<sup>102)</sup>

한편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慧超의 巡禮 길은 漸次 그 중요한 意味를 더해가는 韓·東南亞間의 關係에 있어 自體로도 重要한 뜻을 갖고 있다고

100) 399년 '타림'盆地의 '비단길'을 거쳐 印度를 巡禮 後 배편으로 歸國. 그의 (337 - 422) 15년간의 旅行記가 佛國記임

101) 姓은 陳이며 河南人. 印度 巡禮時 佛經 627部를 가지고와 29년 동안 75部 (1,335 卷)을 翻譯

102) 김연갑, 한국의 名著 (4) 往五天竺國傳 (서울 : 스포츠서울, 1989.10.25)

볼 수 있다.

本稿를 통해 不充分한 準備와 努力으로 慧超와 ‘스리위자야’의 關聯性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음을 自認하지만 慧琳의 『一切經音義』中 『慧超往五天竺國傳』上卷에 收錄된 39개의 語句, 語彙의 分析과 그 分析을 통하여 慧超의 巡禮 길중 ‘스리위자야’ 王國과의 關係 考察과 中國記錄을 基礎로 慧超의 入竺時 利用했을 當時 東南亞航路의 復元을 試圖한 것으로 自足하고 싶다.

또한 우리에게 普遍化, 專門化 되지 못하고 있는 東南亞地域의 歷史, 특히 인도네시아 歷史의 한 斷面을 本稿에서 다룬 ‘스리위자야’ 王國의 存在를 浮刻, 言及한 것에 대해 작은 意義를 느끼고 싶다.

東南亞는 우리에게 먼 異國이 아니라 우리의 先祖들이 情熱과 生命을 걸고 오랜 過去에 이미 스쳐 지나간 地域임을 本稿를 통해 밝히고 싶었고 東南亞地域으로 그 날개를 펴고 있는 韓人들의 기상 속에는 慧超의 숨결이 뉘뉘히 같이 살아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筆寫本 『往五天竺國傳』에 收錄된 慧超의 5 首 詩를 통하여 眞率한 그의 마음과 높은 문학의 眼目을 一見할 수 있었으나, 筆寫本이 갖는 어쩔 수 없는 原典의 節略, 脫字, 誤字 또는 添加로 인하여 慧超의 眞面目을 제대로 接近할 수 없었던 限界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歷史的인 事實에 近接하기 위해서는 關聯 되는 當爲의이고 確固한 史料로서 論證하는 것이 가장 基礎的인 接近方法이라는 主張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잊혀졌던 歷史의 事實을 復元함에 있어 더 더욱 그 接近方法이 強調 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直,間接으로 關聯 되는 100개의 可能性에 대한 考察을 통해 그 歷史的 事實에 該當 되는 단 하나의 蓋然性이 論證 될 수 있다는 큰 욕심이 앞서 지금까지 作業을 進行해 왔음을 숨김 없이 밝히고 싶다.

歷史의 한 部分을 復元한다는 거창한 命題 앞에 日淺한 學問的 知識의 限界와 缺如 그리고 非專攻者로서의 蠻勇과 我執이 門外漢이라는 美名 아래 慧超와 ‘스리위자야’ 王國의 虛像에 매달린채 그 어리석음이 어쩔 수 없이 克明하게 路程 되었지만 本稿가 慧超와 ‘스리위자야’에 대하여 새로운 地平을 열

려는 우리의 勞力에 一翼을 擔當했으면 한다.

結論으로 다음과 같이 慧超의 中國 廣州에서 '裸形國'까지 잊혀진 旅程과 慧超의 '스리위자야' 滞在 可能性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자 한다.

1) 720년 初葉인 720, 721, 723 또는 724년 10월에서 12월 사이 北東 季節風이 부는 時期에 慧超는 入竺을 위해 中國 廣州에서 乘船, 珠江을 따라 내려 가다가 '마카오' 앞 바다에서 右側으로 방향을 잡아 海南島와 中國大陸 사이의 海路를 따라 西進하여 지금의 베트남 北部地域에 到着

2) 베트남 南部地域에서 일어난 '마이 푹 로안'의 亂은 慧超의 旅程에 直, 間接으로 影響을 미쳤으며 慧超는 베트남의 東部, 南部地域의 港口地域에 寄港, 閩蔑(크메르, Khmer)에 의해 攻略된 林邑(베트남 南部地域)에 대한 見聞을 聽聞 또는 그 地域에 滯留後 다시 南下

3) (1) 質 海峽(Singapore)을 通過하여 수마트라 東部海岸을 거쳐 '말라카' 海峽을 지나 '바루스' 또는 '끄다' 地域을 細由, '裸形國'에 到着

(2) '방까' 海峽을 通過, '스리위자야'의 '팔렘방' 또는 '잠비'에 到着, 一定期間 梵語와 五天竺國과 恰似한 禮佛方法을 배운 後 '말라카' 海峽을 지나 '바루스' 또는 '끄다'를 細由하여 '裸形國'에 到着한다.

4) '끄다' 狹地를 通過했을 可能性은 거의 없으며 3) (1), (2)의 航路를 慧超가 利用했을 可能性은 매우 높으며 그 경우 慧超는 '스리위자야' 王國의 管轄地域에서 그 期間은 把握할 수 없지만 寄港, 滯留했음을 意味하게 된다.

## 參 考 文 獻

### I. 國語

#### 1. 單行本

高柄翊, 慧超의 길을 따라, 서울 : 東亞日報社, 1984.

金鍾玉, 新왕오천축국전 (상), 서울 : (株) 韓國放送事業團, 1983.

劉仁善, 베트남史, 서울 : 民音社, 1984.

李龍範, 東南아시아 航路와 韓國史, Silk Road(실크로드), 서울 : 三省堂, 1987.

崔鳳浩, 동남아 事情(증보판), 서울 : 學文社, 1990.

蕭伯贊, 이진복, 김진옥 옮김, 中國全史(上), 서울 : 學民社, 1990.

慧超, 李錫浩譯, 往五天竺國傳, 乙酉文庫 46,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Dietrich Seckel, 白承吉 譯, 佛教美術 (原名 : The art of Buddhism), 서울 : 悅話堂, 1985.

#### 2. 論文

金榮秀, "Sriwijaya 王國에 대하여" 崔鳳浩教授 停年退任 紀念論文集, 1990.

#### 3. 日間紙

金文經, 張保臯, 서울 : 朝鮮日報, 1992. 11. 17.

김연갑, 韓國의名著 (4) 往五天竺國傳, 서울 : 스포츠서울, 1989.10.25.

尹明喆, 李節風, 海洋學術紀行 (31), 韓民族 文化 뿌리찾기,

서울 : 朝鮮日報, 1991.10.2

\_\_\_\_\_, 南方航路, 海洋學術紀行 (32), 韓民族 文化 뿌리찾기,

서울 : 朝鮮日報, 1991.10.8

李秉元, 海上 실크로드 大探查, 유네스코 主管 "印度 - 泰國 루트를 가다"

(7), 서울 : 東南日報, 1991.3.11.

張學根, 배, 新羅의 交易船, 서울 : 서울新聞, 1992.9.2.



## II. 中國語

### 1. 單行本

舊唐書

島夷志略

唐大和尚東征傳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宋史

新唐書

嶺外代答

一切經音義

諸蕃志

馮承鈞, 中國南洋交通史, 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0年

\_\_\_\_\_, 諸蕃志校注, 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5年

## III. 인도네시아語

### 1. 單行本

Drs.R.Soekmono, *Pengantar sejarah kebudayaan Indonesia 2*,  
Yogyakarta : Penerbit Kanisius, 1988.

Drs.S.W.Siswoyo, *Sejarah untuk SMA dan sekolah yang sederajat*, Jakarta : Penerbit Intan Klaten, 1979.

Nia Kurnia Sholihat Irfan, *Kerajaan Sriwijaya*, Jakarta : Girimukti Pasaka, 1983.

R.Moh.Ali, *Peranan Bangsa Indonesia dalam sedjarah Asia Tenggara*, Djakarta : Bhratara, 1963.

Sagimun M.D., *Peninggalan sejarah tertua kita*, Jakarta : CV Haji Masagung, 1987.

Y.Achadiati, *Sejarah peradaban manusia zaman Sriwijaya*, Jakarta : Gita Karya, 1983.

## 2. 論文

Hasan Muarif Ambary, *Catatan tentang penelitian beberapa situs masa Sriwijaya*, Praseminar penelitian Sriwijaya, Jakarta : Pusat penelitian purbakala peninggalan nasional, 1979.

H.B.Sarkar, *Cultural Relations Between Indi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New Delhi :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 1985. S.Sartono, *Pusat-pusat kerajaan Sriwijaya berdasarkan interpretasi paleogeografi*, Praseminar penelitian Sriwijaya, Jakarta Pusat penelitian purbakala peninggalan nasional, 1979.

Sattawati Suleiman, *Penelitian sejarah dan sejarah kesenian Sriwijaya*, Praseminar penelitian Sriwijaya, Jakarta : Pusat penelitian purbakala peninggalan nasional, 1979.

## IV. 말레이시아語

### 1. 單行本

Ismail Hamid, *Masyarkat dan Budaya Melayu*, Kuala Lumpur : Dewan Bahasa dan Pustaka, kementerian Pendidikan Malaysia, 1991.

V. 英語

1. 單行本

Alastair Lamb, *Chapter XXXI. Indian Influence in ancient South-East Asia, Cultural history of India.* Oxford Univ.press.

Jacob Cornelis van Leur, *Indonesian trade and society,* Hague : Van Hoeve, 1955.

Mubin Sheppard, *Taman Indera,* Kuala Lumpur : Oxford Univ.press, 1985.

N.J.Ryan, *The Cultrual heritage of Malaya,* Kuala Lumpur : Longman Malaysia sdn.Berhad, 1972.

O.W.Wolters, *Early Indonesian commerce,*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press, 1967.

Samuel Beal, *Some remarks respecting a place called SHIH-LI-FO-SHIH,* Paris, Leiden, 1883 - 1886.

2. 論文

Philippus Samuel van Ronkel, *A preliminary notice concerning two old Malay inscriptions in Palembang.* Acta Orientalia II, 1924.

Slamentmulyana, *Srivijaya's territorial expansion in the 7th and 8th centuries.* Majalah arkeologi II (3), 1979.

IV. 佛語

1. 單行本

E.Renaudot, *Anciennes Relations des Indes de la Chine* : Paris, 1718.

George Coedes, *Le Royaume de Crivijaya*, BEFEO, tome XVIII, 1918.

Joseph Toussaint Reinaud, *Relations de voyages faits Par les Arabes et les Persans dans L'Inde la Chine*, 2 vols, Paris, 1845.

## 2. 論文

George Coedes, *Talanai*, JGIS, VIII, 1941.

P. Pelliot, *Une bibliothèque Medievale retrouvée au Kan-Sou*, BEEEO 8, 1908.

## VII. 和蘭語

### 1. 論文

Hendrik Kern, *Inschrift van Kota Kapur*, BKI : deel 67, 1913.